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SPINDLEFISH AND STARS

가제 : 스피들피쉬와 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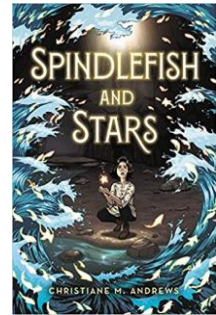
저자 : Christiane M. Andrews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20년 9월 22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미들그레이트 판타지



- ★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소녀가 사라진 아빠와 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 ★ Little Brown 사의 올해 볼로냐 도서전 리드 타이틀 - 한 번 읽으면 내려놓을 수 없는 흡입력 있는 이야기

한 마을 외곽,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느 낡은 집에 ‘클로틸드’라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 소녀는 평생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고 의지할 가족이라곤 병든 아빠,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의 아빠마저 사라지고 클로틸드는 난생 처음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할 운명을 맞게 된다.

클로틸드는 여느 소녀들과는 달리, 예쁘기는커녕 소년들이나 입는 더러운 바지와 부츠를 신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봄철의 양털처럼 바싹 깎여있었다. 게다가 아빠와 함께 있지 않을 때면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들의 그림자 속이나 집 구석으로 파고 들어가 질긴 잡초들과 억센 순무들을 들썩시면서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클로틸드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소녀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법이라며 그녀를 측은히 여겼고 클로틸드는 그런 이웃들에게 단 한번도 미소를 보이거나 인사를 건넨 적조차 없었다. 아빠는 이따금 집에 들어올 뿐이고 엄마도 없이 거의 모든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는 사내아이처럼 생긴 여자아이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은 소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녀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러 밖에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마을 성벽을 타고 올라가 들판으로, 숲 속으로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리고 그 짧은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어느 집 부엌이나 헛간에서 훔친 빵과 치즈를 가득 주머니에 실어온 클로틸드의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클로틸드는 여느 때와 같이 아빠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숲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시기상 오늘이 분명 아빠가 도시에서의 도둑질을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올 때였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않자 불안해진 클로틸드는 아빠를 부르며 숲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 늘 아빠가 아침 종이 다섯 번 울리기 전까지도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마을을 떠나라고 했던 경고의 말을 떠올

렸다. 얼마 후 클로딜드는 수상함 물체가 자신의 주변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큰 키와 걸음걸이로 보았을 때 아빠는 아닌 것 같았지만 확실한 건 그 정체 모를 사람 이 클로딜드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클로딜드는 재빨리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는 잠시 나무 주변을 돌더니 곧바로 클로딜드를 발견하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소년의 몸에서는 돼지고기 냄새가 풍기고 있었는데 그는 잠시 비웃는듯하더니 그녀에게 이름이 ‘클로딜드’가 맞는지 물었다. 그 소년은 클로딜드 아빠에게 돈을 받고 대신 그녀에게 소포와 편지를 전해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편지 속 글씨는 이미 잉크가 번지는 바람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편지의 내용은 아빠가 보낸 편지와 보낸 티켓을 가지고 항구로 가서 배를 타라는 것인듯 했다. 그러나 클로딜드는 왜 아빠가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인지, 편지에 적힌 낯선 단어 ‘하로스’는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가 없었다. 클로딜드는 소년에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자신이 일하는 집의 주인 마님의 보석들이 죄다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으며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클로딜드의 아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클로딜드는 발끈하며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보석을 훔치는 도둑은 결코 아니라고 항변했다.

소년과 헤어진 후 홀로 남은 클로딜드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숲 속을 걸기 시작했다. 클로딜드가 아는 그녀의 아빠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해서 돈을 뺏거나 값비싼 화려한 물건들을 빼앗는 그런 도둑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잃어버린 것들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부자들한테서 빵이나 치즈 같은 먹을 거리와 생필품만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었다. 클로딜드는 아빠를 믿고 있었고 그런 아빠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항구로 향했다. 일단 항구에 도착하긴 했지만 클로딜드는 한 번도 배에 타 본 적이 없는데다 모든 것이 낯설어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한 선원이 나타나 클로딜드의 표를 확인 했고 클로딜드는 별 어려움 없이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배에서의 생활은 훨씬 힘들었다. 배는 심하게 흔들리는데다 선원들은 어딘지 모르게 포악해 보였고 갑자기 아빠도 없이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든 클로딜드는 두려움 속에서 눈물만 흘려야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목적지는 신기하게도 햇빛 하나 들지 않는 한 섬이었다. 그 섬의 유일한 주민들이란 고약한 성미를 가진 어부와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가진 한 노파와 뚱뚱한 고양이, 얼굴에 달 모양이 새겨진 캐리라는 한 소년뿐이었다. 클로딜드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는커녕 섬에 갇혀 끊임 없이 태피스트리를 짜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곁에서 희귀한 물고기들과 더불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게 되었다. 클로딜드는 결국 이 섬에서 사라진 아빠와 태피스트리를 짜는데 이용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실들에 대한 비밀을 스스로 밝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다. 클로딜드는 과연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촘촘히 엮인 한 편의 흥미로운 미스터리이다.

#### <저자 소개>

크리스티안 앤드류스(Christiane Andrews)는 뉴 햄프셔에서 문학과 작문을 가르치고 있다. 이 소설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제목 : STAY

가제 : 함께 있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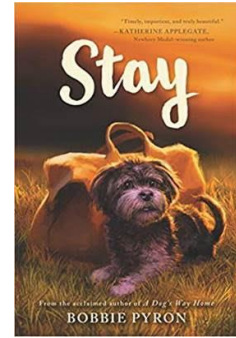
저자 : Bobbie Pyron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19년 8월 1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문학



\* “작은 개, 그 개의 반려인인 한 노인, 노숙자 소녀가 만나 뜻밖의 행운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커커스 리뷰」

열두 살 소녀 파이퍼가 바라고 있는 소망은 여느 소녀들의 그것과는 좀 달랐다. 파이퍼는 집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파이퍼의 소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였다. 파이퍼네 가족 네 식구는 모두 남들과는 좀 다른 장소에서 지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기치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특별한 개들이 파이퍼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이퍼는 동생 딜런과, 엄마 아빠와 함께 익숙한 동네와 친구들을 떠나 네 식구가 앞으로 함께 생활하게 될 노숙자 쉼터를 향해 가고 있는 야간 버스 안에 타 있었다. 버스 운전 기사와 파이퍼를 제외하곤 모두들 잠에 빠져 있었다. 파이퍼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제 더 이상 파이퍼에겐 읽을 책조차 없었기 때문에 대신 자신이 만들어 낸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공상에 빠졌다. 그 이야기란 사실 파이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야기이기도 했다. 파이퍼네 가족이 복권에 당첨 되어 집세 걱정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두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파이퍼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공상에 불과했다.

마침내 네 식구는 버스에서 내렸고 파이퍼의 아빠는 주소를 들여다보며 목적지를 찾기 위해 계속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파이퍼 역시 가족과 함께 걸으며 길을 찾다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배가 고파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종이 판자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하얀색 발에 갈색 몸을 가지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절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와는 달리 그 개는 연신 꼬리를 흔들며 밝은 모습으로 파이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쉼터를 찾고 있던 아빠는 갑자기 멈춰 섰고 엄마 역시 잔뜩 지친 얼굴로 그 곁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파이퍼는 갑자기 마음이 ‘쿵’하고 내려 앉는 것을 느꼈다. 네 달 전 집을 잃게 된 파이퍼네 가족은 그 후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써보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파이퍼는 이번에도 일이 잘못 된 것은 아닌지 괜시리 불안해졌다.

한편 파이프가 방금 마주쳤던 그 여성은 바로 노숙자인 ‘즈웰’이었고 그녀와 함께 있던 개의 이름은 ‘베이비’였다. 즈웰은 원래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기로 되어있었는데 그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개인 베이비와는 함께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운 겨울에도 공원에서 지내기로 했다.

베이비는 언제나처럼 즈웰 옆에 딱 붙어서 한 버스에 올라탔다. 베이비는 이전에도 자동차나 버스에 타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버스에 타면 들을 수 있는 쿵쿵 울려대는 소음과 진동은 여전히 불편했다. 게다가 아이들은 끈적거리는 손으로 베이비의 얼굴이나 몸을 쿡쿡 찌르거나 뺨히 바라보기도 했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착한 베이비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꼬리를 흔드는 인사로 화답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즈웰은 판지를 위로 들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즈웰에게 1달러, 2달러 등을 건네주었고 베이비는 기뻐하며 주위를 뱅글 뱅글 돌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얼마 후 즈웰과 베이비는 버스에서 내려 다시 길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그 때 갑자기 차에 탄 몇몇 사람들이 즈웰에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라는 둥,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둥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고 베이비는 즉시 즈웰에게서 절망과 공포의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럴 때면 베이비는 당장이라도 그 자동차를 쫓아가 즈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물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곧 어디선가 한 여성이 나타나더니 즈웰의 어깨와 베이비를 한 번 쓰다듬더니 맛있는 냄새가 나는 포장된 원가를 건네주고 난 후 사라졌다. 그 안에는 맛있는 샌드위치가 들어있었고 즈웰은 샌드위치의 반을 베이비에게 주었다. 이 세상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베이비와 즈웰이 함께 지내는 공원에는 또 다른 노숙자인 리와 그녀의 반려견인 에이잭스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다행히도 파이프네 가족은 드디어 쉼터를 찾아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규정상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들은 다른 옆 건물에서 따로 지내기로 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파이프는 근처 공원에 나갔다가 리와 에이잭스를 만나 친구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즈웰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베이비는 동물 보호소에 보내지고 말았다. 파이프는 이에 리를 도와 즈웰과 베이비가 다시 만나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모금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즈웰과 베이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세상에서 소외된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과 개와 소녀의 시점을 통해 그려낸,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녀, 그리고 개와 인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바비 파이프론 (Bobbie Pyron)은 심리학, 인류학 및 도서관학을 전공했다. 저서로는 『The Ring』, 『Dog's Way Home』 등이 있으며 주로 개와 인간에 대한 우정을 그린 이야기를 쓰고 있다.